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음 7월 8일) 제16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한여름밤 축제, 전주 · 군산에서

'전주야행, 천년벗담', 12일부터 2일간 1차 · 내달 30일부터 2일간 2차 진행
'여름밤, 근대문화유산거리를 걷다', 13일부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

무더운 한여름밤 전북 천년의 역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문화재청 신규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와 군산시가 8월 연휴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즐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전주시는 '전주야행, 천년벗담'이라는 주제로 1차(12~13일), 2차(9월 30일~10월1일)로 나눠 야행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12일은 오후 7시20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개막식을 개최로 본격적인 행사가 막을 올린다.

군산시는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13~14일 이틀 간 야행사업을 진행하며, 13일 오후7시부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특히 전주시와 군산시는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7야(夜)기행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7야(夜)는 ▲야경(夜景,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로(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야사(夜史,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화(夜畵, 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을 뜻한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해 강강수월래 플래시몹(경기전)과 월하낭송-문화작품낭송대회(오목대), 쪽배살풀이(전주천), 줄타기 공연(국립무형유산원), 미디어파사드(풍남문), 남부시장 야시장(거리음식투어)과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을 통한 전시, 체험 행사 등을 준비한다.

또 군산시는 구 군산세관과 구 조선은행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근대복장 체험(초원사진관), 나라사랑 무궁화전시회(구 일본 제18은행), 신흥동 달빛공연(신흥동 일본식가옥), 플리마켓, 개항장터(근대역사박물관 일원)와 근대문화유산 거리 내 문화시설의 야간개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도는 전주·군산시 야행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재 향유권이 주간관람권에서 야간관람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8월 방학 연휴를 맞아 타 시도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년 야행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내년도에는 전주, 군산과 더불어 타 시군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도-시군간 협업을 통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9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정현 의원이 손을 흔들고 있다.

활짝 웃으면서 더불어 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이춘석, 안호영의원,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신임 당대표 '이정현' … 최고위원 '친박' 들 다수…
새누리, '도로 친박당' 되다

새누리당 새 대표에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다.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되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친박계가 4명이 당선되는 등 친박계가 싹쓸이 했다.

이정현 후보는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 및 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총 4만4,42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비박계 단일주자인 주호영 후보는 3만1,946표로 2위를 차지했고, 이주영 후보 2만1,614표로 3위, 한선교 후보는 1만757표로 4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박계 핵심 조원진, 이장우 후보가 당선됐고, 여성 몫 최고위원에도 친박계 최연혜 후보가 비박계 이은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최고위원 경선 개표결과 조원진 후보는 3만7,459표로 1위를 기록했고 이장우 후보가 3만4,971표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비박계 강석호 후보로 3만3,855표를 득표했고 최연혜 후보는 2만7,080표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대에서 신설된 청년 몫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박계 유창수 후보(6,816표)가 비박계 이부형 후보(5,655표)를 꺾고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한편 이번 전대 전체 선거인단 총수는 34만6,609명이고 이 중 당 대표 경선의 경우 7만6,264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22.0%이다. 총 유효투표수는 7만6,116표다.

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7만6,263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22.0%를 기록했고 총 유효투표수는 14만7,854표다. /뉴시스

도,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나선다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 기간 동안 홍보
향후 한옥마을 등 대상 홍보 인프라 구축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2016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 기간 동안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5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에 따르면 중국환자가 국적별 1위 99,000여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전체 외국인환자 3,935명 중 중국 환자가 433명(11%)에 불과해 중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확대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옥마을과 석도카페리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선박 등을 대상으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중국 중경시와 의료기술 및 환자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상해 전북도 중국사무소를 통해 환자 유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중경시 등을 방문해 도와 중경시 간 병원별 업무협약을 추진한데 이어 중국 우루무치 현지 방송국과 신문사를 초청해 중국 단체 의료관광 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소개할 동영상, 가이드북, 리플릿, 지도를 6개국어(한·영·중·일·러·몽)로 제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도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유치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면